

요즘 애연가들은 이래저래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주일 폐암투병' 을 들고 '작심삼일파' 들의 대대적인 금연선언이 줄을 잇는다. 말 많던 담배값 인상은 2월부터 현실화돼 2백원씩이나 뛰어버렸다. 물론 담배 질이 좋아졌다는 유언비어도 같이 유포되지만, 그 돈이 특하면 텅텅 비는 국고로 헌납될 것을 생각하면 그만 울화가 치민다. 애연가들은 앞으로 외제담배를 사서 필 거라고 야단이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더 있다. 새해 들어 사내 휴게실에 금연 딱지가 붙어버린 것이다.

미국 '빅 타바코' 경영전략 분석한 최신보고서

시위를 할 수도 없고 참자니 억울하다. 담배를 끊어볼까? 최근 모 기업의 금연 캠페인에서는 신종 니코틴 항생제를 실험중이란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닌 '돈'이다. 참가직원 전원이 적절한 돈을 단연(斷煙)에 성공한 이에게 몰아주기로 한 것. 결과는 미지수지만, 담배인삼공사 직원들이 그 회사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하니 꽤 위협적인 방법인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담배의 존재지반을 흔들어놓을 수 있을까? 《담배, 돈을 피워라》(코기토)의 지은이 타라 파커-포프는 아마 콧방귀를 뿜 것이다. 그녀는 "담배 제조비는 1페니가 든다. 팔기는 1달러에 판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충성도는 가히 환상적이다"는 투자전략가 워렌 버핏의 말을 대신 들려줄 것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묻지 말고 이 책을 펼쳐 보라. 그러면 당신은, 담배산업이라는 폭주열차가 내는 최대 시속에 혀를 내두르게 될 것이다.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이 책의 제목을 풀어보면 '담배 피우신다구요? 음, 거대자본의 소주주가 되셨군요? 쯤 되지 않을까? 즉, 이 책은 담배에찬서나 금연지침서와는 달리 미국 담배산업의 메커니즘을 파헤친 일종의 최신보고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인 지은이는 대형 담배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빅 타바코' 들의 역대 운영전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찬찬히 풀어간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이렇다. 어떻게 인간에게 필수적이지도 않고 몸에 도 극히 해로운 소비재가, 지난 몇 세기 동안 불법화되지 않았으며, 게다가 EU 같은 세계권력에서 '흡연은 살인'이라는 살벌한 문구를 담배곽에 새겨넣겠다고 선언하는 마당에 아직까지 전도 유망한 고수의 성장산업으로 남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황금시장 지키려는 담배회사들의 유연한 마케팅 전략

그 이유는 대략 두가지다. 미국 담배업자들이 11억 세계인구를 대상으로 장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랬지만 못사는 나라에서 어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신경이나 쓰겠는가? 게다가 빈익빈부익부라는 신자유주의의 장밋빛 미래가 이들 빅 타바코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가시게 해주지 않는다.

이 책은 담배에찬서나 금연지침서와는 거리가 멀다. 그와는 달리 미국 담배산업을 파헤친 일종의 최신보고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인 지은이는 대형 담배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빅 타바코' 들의 역대 운영전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정리해간다. 그럼으로써 한 전도 유망한 산업의 '나쁜 진실' 을 찬찬히 풀어간다.

책갈피산책

《담배, 돈을 피워라》

지구상 가장 이채로운 상품 산업에 대한 심층취재기

타라 파커-포프 지음 | 박종희 옮김
코기토/A5변형/256면/12,000원



또 하나는 마케팅과 광고 분야에서 담배 산업이 펼치고 있는 활약 덕분이다. 예전에는 할리우드 여배우와의 동일시를 유도하는 신문광고, 가족장화로 코브라를 밟아 죽이는 '말보로맨' 을 등장시켜 미혼남성의 독립심을 자극하는 협찬광고 등에 주력했지만, 광고 제한이 강화되자 요즘은 소매상들에게 자사를 응원하도록 부추기는 금전적 유인책인 '장려금' 에 광고비를 집중 책정하고 있다. 문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탄압을 비켜가는 담배광고사의 이런 기발함과 유연성은 읽는 이의 탄복을 자아낼 정도다. 게다가 의외의 효과도 있었다. 매체에서 담배광고가 사라지자 금연캠페인도 함께 종식돼버려, 흡연을 통제하려는 전세계 정부기관들의 조치가 반대로 시장에서 경쟁사들 사이의 출혈경쟁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냈던 것이다. 니코틴 전달효과를 높이려고 몸에 해로운 암모니아를 섞고, 반흡연 세력의 변호사들과 싸우기 위해 자기들끼리는 추한 싸움을 자제한다는 부분에 도달하면 이들 담배회사에 대한 감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며,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돈을 벌고 싶을까 하는 '측은지심' 까지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 책은 애써서 담배산업을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냥 속도감 있는 기업이야기로 독자들에게 물 속의 오리발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한번 끊어보지' 하고 지긋이 권유한다. 그래서 애연가들을 오락질러 불쾌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 또한 이 책의 미덕(?)이다. 오히려 지은이가 책을 쓰면서, 그 부분을 얼마나 신경썼을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강성민기자